

ep.1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



저는 세상 속 작은 것들까지 소중하게 바라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조차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이루는 작은 장면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언제나 재치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진지해야 할 때는 책임감을 다하지만, 동시에 위트와 유쾌함을 더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도 카리스마와 친근함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경직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가능성을 북돋우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려 노력합니다.

이런 저의 가치관은 관객에게 단순한 영화 관람 이상의 경험을 선물하고자 하는 무비랜드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정한 시선과 재치 있는 태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영화로 나를 표현한다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모두에게 다정히 대하는 것이 곧 싸우는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다정함이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세상을 지탱하는 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도 늘 다정한 시선과 유쾌한 위트를 담고자 합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태도,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로봇 드림』은 이별을 새로운 시작과 추억의 다른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이별 후에도 함께했던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의미 있게 남는다는 영화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관계와 경험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며, 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감사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나 프로젝트를 만날 때에도 그 경험이 제게 오랜 시간 남겨줄 잔상을 상상하며 최선을 다해 임하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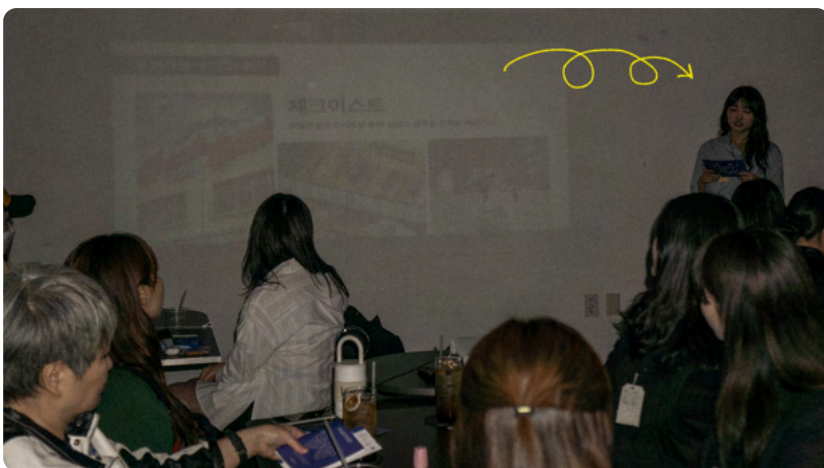
ep.2 무비랜드와의 만남



박시영 디자이너가 큐레이터였던 시기, 빔 벤더스 감독의 <텍사스, 파리>를 관람하러 무비랜드에 처음 방문했을 때 무비랜드만의 특별함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방문해 어색하게 공간을 둘러보고 있던 제게 먼저 다가와 첫 방문인지 묻고 굿즈를 설명해주시던 스태프 분의 응대는 직원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관객 경험을 세심하게 고려한 1~3층의 공간 구성도 인상적이었고, 상영 직전 "쓰레기는 자리에 두고 가져도 된다"는 안내 멘트조차 무비랜드다운 위트로 다가왔습니다. 관람했던 영화 자체도 좋았지만, 공간에서 느꼈던 영화 외의 경험들 덕분에 무비랜드의 방문이 제게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맞이하고, 그들이 경험할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비랜드가 운영진 스스로 디자인과 공간, 고객 경험까지 연결하는 방식은 제가 바라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앞으로 무비랜드를 찾게 될 관객들도 제가 느꼈던 따뜻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무비랜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ep.3 디자인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는 주니어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객과 사용자가 있는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해왔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의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진행을 맡았고, GV나 뮤지션의 공연 등 다양한 인디팬던트 문화를 접목해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립영화 상영회의 운영과 디자인을 총괄했습니다.

큰집/더큰집/루터/작은집

- 카페와 간식 냉장고 등에 있는 사이니지 수정작업
- 가능하면 1월내, 설 연휴 있기 때문에 일정 밀리면 2월초까지 디자인 전면 교체 목표 (토서디 메인 담당자: 정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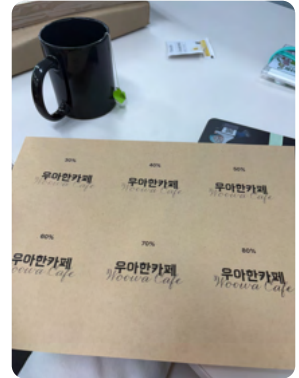


정다원(Dawon)/OFF/토탈그래픽B파트

1/31

우아한카페

- 승재님께 요청 및 질문
 - 메뉴 리스트
 - 메뉴판 틀린 내용 없는지 검수
 - 더큰집 와블러만 사이즈 다른 이유 여쭙보기
 - 메뉴 POP 가이드 파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여쭙보기
- 가견적서 작성 - 신현순 차장님 전달
 - 중간에 모르겠으면 규연님께 여쭙보기
- 냉장고 사이니지 디벨롭



프레스이오더 픽업존



더불어 기업 사내 카페에서 실제 진열·설치되는 그래픽 작업을 담당하며, 제 디자인이 현실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소통하고, 발주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작업이 누군가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주는 책임감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적인 성향 덕분에 디자인뿐 아니라 현장 진행과 운영 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많습니다. 독립영화 상영회에서는 관객 응대와 현장 통솔을 맡았고, 소모임 활동에서는 외부 워크숍을 기획·진행하며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경험을 완성해온 덕분에 운영과 소통에도 능숙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운영을 모두 경험하며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무비랜드에서도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공간과 관객을 직접 잇는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ep.4 영화와 사람을 잇는 현장에서의 배움



무비랜드가 추구하는 '영화 경험의 확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단체 GUJiff의 부대표로 활동하며, 비극장 상영회라는 독특한 포맷의 독립영화 상영회를 총괄했습니다. GUJiff는 매 상영회 독립영화 배급사와 직접 컨택하여 행사의 콘셉트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고, 독립영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관객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과 연결되는지를 체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무비랜드의 가치관과 닮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3회 비극장 상영회 <C와 D코드>는 저의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예산 설계부터 배뉴 컨택, 뮤지션과의 미팅, 팀 간 협업까지 상영회 운영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독립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디 문화에서 영화와 음악의 교차 지점을 찾고, 관객이 이 교집합 속에서 즐거움을 향유하며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화와 음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식에 도전했습니다. OTT 시대에 '공간'의 가치를 믿고 오프라인 극장을 세운 무비랜드처럼, 저에게도 이 경험은 실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상영회를 단순한 관람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고민했습니다. 패들릿을 활용한 감독과 관객의 대화, 인디 뮤지션의 공연, 상영회 굿즈 제작 등 영화 외적인 요소들을 결합해 이야기를 확장했습니다. 관객은 이 이 상영회를 통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고, 영화를 보는 순간의 의미를 넘어 더 넓은 맥락에서 상영회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디테일이 곧 브랜드 경험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공간과 현장을 설계했습니다. 조명 세팅, 좌석 배치, 모더레이터의 멘트, 스태프의 동선까지 하나하나 고민하며, 작은 요소들이 모여 관객의 몰입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디자인과 운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관객 경험을 완성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디자인과 기획, 운영이 결국 하나의 흐름 속에서 관객의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무비랜드에서 주니어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며, 단순한 상영을 넘어 관객에게 오래 남을 경험을 디자인해 무비랜드의 세계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p.5 함께일 때 더욱 특별해지는 사람

저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으며 팀의 방향을 잡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좋은 리더십은 팔로워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팀을 원활히 이끌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팔로워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새로운 팀에 합류하더라도 언제 앞장서야 할지, 언제 뒤에서 힘을 보태야 할지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아_달려라!

아낌없는 시간 할애와 진지함을 모두 갖추었어요.

#밝은_에너지

보는 것만으로 힘이 나요.

#단단한_강자 #다른_사람의_강점도_파악

스스로도 단단해보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강점도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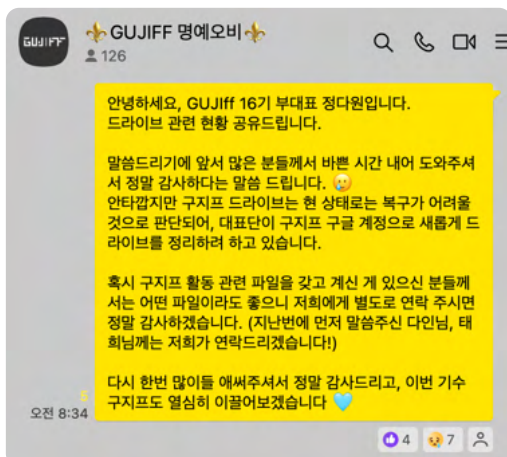
#끊임없이_넓고_깊은_시도를_하는_사람

잠이 부족한데도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표현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해요.

또한 협업 과정에서는 재미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팀원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며, 카리스마와 위트를 상황에 맞게 발휘해 팀이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한 동료들은 제가 밝은 에너지를 지니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진지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빠르게 파악해 가능성을 끌어내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ep.6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순간

올해 상반기, 대학생 독립영화 상영 기획 단체 GUJIFF의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한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약 8년간의 자료가 보관된 구글 드라이브가 초기 소유자의 계정 문제로 완전히 삭제되어, 손익계산서와 활동 장부를 포함한 모든 파일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부대표로서 저는 먼저 불안해하는 팀원들을 안심시키고 대표의 마음을 다잡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파일을 온전히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OB 연락망을 통해 기존 자료를 모으고, 사라진 회계 문서는 처음부터 다시 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용 계정을 개설해 백업 체계를 마련하고, 복잡했던 폴더 구조를 개편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정도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구지프 구드 관련 공지 📍

기존 구드 계정은 초창기 구지프 멤버 분의 '개인 계정'으로 개설되어, 현재 일어난 문제 또한 그 분의 계정과 관련 있어보입니다. 대표단에서 컨택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새기수 시작도 얼마 남지 않았고 더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때 대표단 측에서 '구지프 계정'으로 새 드라이브를 파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OB분들께 요청하여 최대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지만, 유실된 범위가 방대하기에 대표단은 최대한 구지프 단체와 관련된 자료들, 중요한 서류 위주로 확보 중이며 없는 자료들은 다시 만드는 중입니다.

☀️ 따라서 각 팀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팀장님들께서 '직접' 리스트업 하시어

-이전에 백업해둔 파일 확인
-공유문서함 확인 (간간이 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됨)
-기존 메일링 이력 확인
-이전 기수 팀장님들께 요청 드리기
등의 방식으로 자료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단 측에게 🌟 3/9까지 🌟 리스트업 사항 및 확보 진행 사항 전달 부탁드립니다! (3/9까지 모든 걸 완료하라는 의미 X, 진행 상황만 공유 O)

하지만 최대한 틈 날때 마다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추후 본격적인 업무 진행 시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것들 생기면 대표단에게 물어봐주세요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 저희 모두 조금만 더 고생하여 신속히 해결해봅시다!! 🍀
많은들 구드 관련해서 불안해 하실텐데, 너무 걱정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은 저 혼자였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옆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 준 대표 덕분에 가능했고, 그 덕분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동료와 함께하는 협력의 가치까지 깊이 배우게 해 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